

붕괴사고 아이파크 201동 안정화 눈앞

해체·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후 철거 시작
마무리 2024년 12월...재시공·입주 2027년 말 예정

화정 아이파크 전면 철거 전 201동 안정화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건축위원회 해체심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본격적인 전면철거가 시작된다.
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이날 201동 동측 기둥 및 남측 벽체 등 112개 부재 해체 작업(안정화) 공정률은 98.15%로

10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작업은 기둥 커팅 시엔 비산먼지 억제에 위해 코어링 방식이, 벽체 커팅은 핸드커팅(습식) 방식이 사용됐다.
계획된 작업 완료 예정일은 오는 26일로, 서구와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현산이 이달 중 서구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를 개최된다.
국토안전관리원도 현산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현장 실사도 예정된 경로 알려졌다.
일련의 과정 후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전면철거가 시작된다.
현산은 철거 시점을 내년 상반기(3~4월)로 보고 있다.
다만 서구 건축위원회 해체심사나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에서 보완·시정조치가 내려오면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자연 없이 철거가 시작되면 현산은 2024년 12월까지 전체 동 철거를 마칠 계

획이다.
이후 재시공은 지난 2019년 사업계획 승인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철거 후 재건축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다.
재건축과 입주 마무리 시점은 2027년 12월로 예정됐다.
서구 관계자는 “현산 측이 내주께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후 과정은 건축위원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검토를 거친 뒤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안재영기자

동구, 미래 예술 방향성 모색

광주 동구가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는 예술 생태계에 발맞춰 지역 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동구만의 예술 방향성’을 모색한다.
동구는 8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예술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변화하는 미래 예술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미로, 메타아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주형 AI 뉴딜, 자치구 대상 우수 사업’ 공모에 선정된 ‘미로, 메타아트 프로젝트’는 ▲디지털 아트 국제공모 ▲예술의 거리 배경 메타버스 월드맵 구축 ▲온·오프라인 기술 캠프 운영 ▲NFT 쇼케이스 진행 ▲NFT 아트 큐레이션 마켓 연계 등 지역 내 디지털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NFT 예술 브릿지 구축사업이다.
동구는 ‘미로, 메타아트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NFT 창작자 글로벌 커뮤니티 발굴·지원을 위한 디지털 아트 국제공모 ‘미로 레이스:더 모멘트 2022’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미로 레이스:더 모멘트 2022’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 예술시장을 겨냥한 지자체 주관 디지털 아트 국제공모 첫 사례로 디지털 아트의 수용성과 NFT 예술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공모 주제는 ‘더 모멘트 2022’로, 세부 키워드는 ▲국경&이주 ▲기후 변화&위기 ▲코로나19&뉴노멀을 선정했다. 올해 키워드에 맞춘 2D, 3D, 애니메이션,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아트 등 디지털 작품을 완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만 14세 이상 개인 또는 그룹이며 참여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이다.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miro-metaart.com)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ace.miro@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오복기자



정성스럽게 만든 ‘사랑의 선물’ 산타모자를 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북구 매곡동 지사 양리뒤농촌에서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300여 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포장·제작하고 있다. 선물 주머니는 김, 멸치, 미역, 핸드크림 등 10가지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김예리기자

전직 구의원 전용 특별경로당 지원 논란

수천만원 투입 특혜 의혹...남구 “노인복지법·조례 등 문제없어”

광주 남구 전직 구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 전용 경로당이 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구가 설치 예산으로 수천만원을 지원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진월동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전·현직 남구 구의원의 의정동우회 회원 중 65세 이상 전의원 2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설치했다.
남구는 경로당 설치 예산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리모델링비 1천99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1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 82만5천원도 2027년까지 5년간(연장가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남구가 편법으로 의정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회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남구 의원은 “특권층을 위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문

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남구는 노인복지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특별경로당은 설치에 문제가 없고 이미 5곳이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인복지법과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경로당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반인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 특별경로당은 지난 9월 기준 오월어머니집경로당, 보훈경로당, 공원경로당(바독), 대한시우경로당(시조), 삼명경로당 등 5곳이 운영 중에 있다. /오복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

해돋이 07:29 해질 17:20
달돋이 17:58 달질 08:25

생황정보지수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 날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히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2:20	07:43
목포	30~30		15:12	20:27
순천	30~30	여수	09:49	03:12
여수	30~30		21:43	15:52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서-북/0.5-0.5m
면바다 북서-북/0.5-1.0m

오후 앞바다 북-북동/0.5-0.5m
면바다 북-북동/0.5-1.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서-북/0.5-0.5m
면바다 북-북동/0.5-1.0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0.5m
면바다 북-북동/0.5-1.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2월 10/토 (3/10) (-1/7) (4/11) (0/8) (1/10) (9/14)

11/일 (0/7) (-3/5) (1/9) (-3/6) (0/9) (7/9)

12/월 (-2/8) (-3/4) (2/10) (-4/6) (-2/8) (5/11)

▶ 날씨안내 : 국민없이131

서구,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급

광주 서구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수집인 85명이다. 지원물품은 리어카나 트럭에 폐지 등 재활용품을 고정하고, 야간·새벽활동시 빛을 반사해 수집인들의 교통사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야광밴드와 동내북 2벌이다.
이번 지원에 앞서 서구가 지난 2021년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한 결과 총 8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은 80명으로 확인됐다. /안재영기자

특히 어르신들은 리어카를 이용해 폐지를 줍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구는 광주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망 구축 및 건강 보호 등 사회적 지원도 펼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작은 물품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집인 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양림동서 ‘미리 크리스마스’

양림&크리스마스 문화 축제가 임인년 끝자락부터 계묘년 연초까지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를 뜨겁게 달군다.
성탄 퍼레이드와 코스튬 변신, 캐럴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불거리가 가득해 근대역사문화 마을이 들쭉날쭉으로 보인다.
8일 남구에 따르면 2022년 양림&크리스마스 문화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한달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우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경관조명이 양림동 겨울 밤하늘을 비추며 오는 13일 오후 5시 양림 오거리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린다.
또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입구에서 일방로 구간과 선교사 묘역 주변에는 크고 작은 트리를 포함한 이색 경관조명이 방문객을 반긴다. /오복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엔 200여년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담양군내시장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청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

CMYK